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베어벡 “포메이션 바꿔 日 꺾는다”

오늘밤 9시 35분 아시안컵 3~4위전
이근호·김치곤 중용... “2011년 티켓 획득”



경질론에 시달리고 있는 팀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28일 오후 9시35분(이하 한국시간) 인도네시아 팔렘방 자카 바링 경기장에서 숙적 일본과 2007 아시안컵 축구 3-4위전을 벌인다.

3위는 2011년 카타르에서 열릴 예정인 다음 대회 자동 출전권을 확보한다. 47년 만의 우승 꿈이 이미 물거품으로 날아가고 치르는 3-4위전이라 김이 빠졌지만 베어벡 감독 입장에선 어떤 경기보다 절박한 한 판 승부다.

단조로운 전술, 선수단을 장악할 카리스마 부족, 선수 기용에서 이해하기 힘든 아집, 사령탑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비난을 사면서 사면초가에 몰린 베어벡 감독이 한·일전에서 진다면 사실상 회복하기 힘든 치명타를 얻어맞는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을 내다볼 때 더 이상 그의 손에 한국 축구를 맡겨줄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라 한·일전까지 출전으로 끝난다면 변명조차 하기 힘든 코너로 몰릴 것이 뻔하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회 중이라 거취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는 말로 신중한 자세를 지키고 있지만 한·일전 결과가 몰고 올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축구협회 내부적으로는 ‘베어벡의 순진한 지도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해 3-4위전 직후 감독 경질과 후임 사령탑 물색 과정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베어벡 감독은 이를 의식한 듯 ‘한국 축구의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자’며 지친 선수들을 독려했다.

베어벡은 일본 J-리그 오미야, 교토 퍼플 상가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지만 일본 국가대표팀과 대결은 처음이다.

한국 축구와 7년째 인연을 맺고 있지만 한·일전 때 벤치에 앉은 적은 없다.

2003년 국내와 일본을 오가며 치른 세 차

레 일본전은 움베르투 코엘류 전임 감독이 지휘했고, 2005년 동아시아대회 맞대결은 요하네스 본프레레 전 감독이 지휘했다.

베어벡 감독은 작년 11월 올림픽대표팀 한·일전만 두 번 치러 모두 1-1 무승부를 했다. 한 번은 홍명보 코치가 대행해 지휘봉을 잡았다.

베어벡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결과’는 물론 내용이 좋아져야 한다’는 요구다. 한국은 이번 대회 4강에 오른 팀 중 가장 저조한 골 결정력과 지루하고 답답한 경기 운영으로 외국 팬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갑자기 180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이전과 같은 양상의 경기를 반복한다면 실사 일본을 꺾는다 하더라도 경질론을 잠재울 수 없을 지 모른다.

베어벡은 이란, 이라크와 연속 연장 혈투를 펼친 선수들 중 일부를 바꿔 선발 라인업을 잘 계획이다. 단조로운 전술이라는 지



적을 피하기 위해 투톱을 세우는 등 포메이션 변경을 꾀할 수도 있다. 한 번도 출전하지 못한 이근호(대구)와 김치곤(서울), 출전 시간이 짧은 오장은(울산) 등이 중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일전의 위험 부담을 감안할 때 베스트 11의 일가를 뒤흔들진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은희 6언더 “예감 좋다”

LPGA 에비앙 마스터스 1R 선두
한국 남자군 7명 상위권 진입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빅3 중의 하나인 지은희(21·켈러웨이·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에비앙 마스터스 첫날부터 공동 선두에 올라 우승 기대감을 부풀렸다.

지은희는 26일(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트방의 에비앙마스터스골프장(파72·6천 192야드)에서 개막한 대회 첫날 6언더파 66타를 치며 노장 팻 허스트(미국), 브리타니 린시킴(미국)과 함께 공동 1위로 나섰다.

지은희는 올 시즌 한국무대에서 2승을 거두며 신지애(19), 안선주(20·이상 하이마트)와 함께 3강 체제를 이루고 있는 선수.

총상금 300만달러의 이번 대회 초청장을 받은 지은희는 3번홀(파4)에서 이글, 4번홀(파4)에서도 버디를 잡는 등 전반에만 5타를 줄이면서 예상외로 많은 출발을 예고했다.

후반에 들면서 10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했던 지은희는 12번홀과 13번홀(이상 파4)에서 연속 버디로 만회하는가 하면 15번홀(파5) 보기 뒤에도 18번홀(파5)에서 1타를 줄여 기쁜종개 공동 선두 자리를 지켰다.

한동안 미국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배경은(22·CJ)은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로 재미 교포 김초롱(23), 홍진주(24·SK)와 함께 공동 4위에 올



랐다. 안선주도 3언더파 69타를 쳐 장정(27·기업은행), 김미현(30·KTF)과 공동 7위에 포진, 우승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KLPGA의 간판 스타 신지애(19·하이마트)는 16번홀(파4)에서 더블보기를 범하는 바람에 1오버파 73타로 위성미(18·나이키골프), 모건 프레셀(미국)과 함께 공동37위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위창수 2주 연속 ‘톱10’ 예고

US뱅크챔피언십 준우승 이어
PGA 캐나다오픈 1R 공동 5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카드 확보가 불명확했던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가 시즌 중반을 넘어서면서 스포츠에 나서고 있다.

위창수는 27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마카의 앵거스글렌골프장(파71·6천 946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캐나다오픈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6타를 뺐어냈다.

단독 선두 헨리 메이헌(미국·62타)에 4타 뒤진 위창수는 공동 5위 그룹에 합류해 ‘톱10’ 입상은 물론 우승 경쟁에 뛰어들 체미를 갖쳤다.

지난 23일 끝난 US뱅크챔피언십에서 PGA투어 진출 이후 최고 성적인 공동 준우승을 차지했던 위창수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드라이브샷 페어웨이 안착률이 무려 92.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9%에 이르렀고 그린 적중률도 88.9%로 샷 실수가 거의 없었다.

위창수의 주특기인 퍼딩도 홀당 1.688개로 나쁘지는 않았지만 기대에 다소 못미친 것이 아쉬웠다. 평소 퍼팅 실력이 나왔다면 선두권도 바라볼 수 있었던 위창수는 2주 연속 ‘톱5’ 입상과 시즌 세번째 ‘톱10’ 진입 가능성을 환하게 밝혔다.

이글을 3개나 잡아내고 버디 5개를 보태 스스로 “미친 듯이 쳤다”고 말할 만큼 불꽃 샷을 휘두른 메이헌은 대회 코스레코드 타이(62타)를 때렸다.

스티브 앨런(호주)이 7언더파 64타로 2위를 달렸고 데이비드 헌(캐나다), 트립 아이젠하워(미국) 등이 공동3위(65타)에 올랐다.

강력한 우승 후보 비제이 싱(피지)은 3언더파 68타를 쳐 공동18위에 이름을 올렸고 56년 동안 나오지 않은 대회 2연패에 도전하는 짐 퓨릭(미국)은 2언더파 69타로 선두 추격에 부딪을 안개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들어갈 땐 이렇게... 27일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팬 아메리칸 게임’ 싱크로나이즈드 스윙경기에서 미국팀 선수들이 연기를 펼치기 위해 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 김진우 ‘제2 노장진’ 되나

작년이어 또 무단 이탈... 징계 가능성
서정환 감독 “올 시즌 끝났다고 봐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우완투수 김진우(24)가 팀을 무단 이탈해 논란이 되고 있다. KIA 구단에 따르면 김진우는 지난 11일부터 2군의 공식 훈련에 이유없이 불참한 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올해 최악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김진우는 올해 수차례 팀을 벗어나면서도 보통 1주내에 복귀했지만 이번에는 이탈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해 사생활 문제로 무단이탈해 롯데의 ‘애물단지’로 전락했고 결국 자유계약선수(FA)로 국내 팀과 계약에 실패해 사실상 선수 생활을 접은 우완투수 노장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프로 6년차 김진우는 올해 시범경기부터 제구력 불안을 겪다가 6월 초 1군에 올라왔지만 5경기에서 1승2패, 평균 자책점 8.

35에 그친 뒤 지난 8월 2군으로 다시 내려갔다.

KIA는 그동안 김진우가 올해 들어 원하는 곳에 공을 뿌리지 못하는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해 ‘스티브 블래스’ 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김진우는 2003년 폭행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그동안 사생활 문제로 운동에 전념하지 못했고 올해도 정신적인 불안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KIA도 김진우에 대한 기대를 점점 접고 있는 듯한 태도다. 서정환 감독은 지난 15일 LG와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김진우는 올 시즌을 접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윤기두 KIA 홍보팀장은 “본인의 심정은 이해되지만 프로야구 선수로 무단 이탈하다니 정말 안타깝다. 복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구단은 지금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무단 이탈에 대한 제재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다”고 말했다.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강속구와 나차 큰 커브로 기대가 컸던 김진우의 이탈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병현 통산 50승 ‘불발’ 구원 난조로 승리 놓쳐

김병현(28·플로리다 말린스)이 구원 투수의 난조로 다 잡았던 개인 통산 50승을 허공에 날렸다.

김병현은 27일(한국시간) 애리조나 주 피닉스 체이스 필드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친정’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 5이닝 동안 안타를 단 1개만 맞고 2점으로 상대 타선을 봉쇄한 뒤 4-2로 앞선 6회 말 첫 타자 제드 트레이시를 볼넷으로 출루시키고 랜델 핀도로 교체됐다.

김병현은 승리 투수 요건을 갖췄던 미국 진출 8년 만에 통산 50승 및 시즌 6승 달성을 바라봤지만 세 번째 구원 투수 저스틴 밀러가 4-2이던 7회 코너 잭슨에게 동점 2점포를 맞는 바람에 땅을 쳤다. 플로리다는 9회 에릭 번스에게 끝내기 3점포를 맞고 4-7로 역전패했다. 시즌 성적 5승5패를 유지한 김병현은 평균자책점만 4.79에서 4.72로 약간 떨어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동구청 男단체전 銀 국무총리기 정구대회

광주 동구청이 제43회 국무총리기 전국정구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동구청은 26일 충북 음성에서 열린 대회 남자일반 단체전 결승에서 음성군청을 맞아 선전했으나 1-2로 패해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또 서창원과 임근영(동구청)은 개인복식 준결승에서 순천시청에 패해 동메달을 따내는데 만족해야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PGA투어 캐나다오픈 3R(04 : 00·SBS스포츠)
▲메이저리그(미네소타-클리블랜드)(07 : 55·Xports)
▲FIBA 아시아 농구 챔피언십(대만-한국)(13 : 30·MBC ESPN)
▲전국 학교대학 배드민턴 선수권(13 : 50·SBS스포츠)
▲2007 한일 1,2학년 대학축구대회(대한민국-일본)(14 : 00·KBSN Sports)
▲프로야구(두산-롯데)(16 : 30·KBSN Sports), (KIA-삼성)(17 : 00·MBC ESPN)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히로시마)(17 : 50·SBS스포츠)
▲아시안컵 2007 3.4위전(대한민국-일본)(21 : 25·MBC·SBS스포츠·Xports)
29일(일)
▲메이저리그(뉴욕Y-볼티모어)(07 : 55·Xports), (디트로이트-LA에인절스)(10 : 55·Xports)
▲프로야구(두산-롯데)(16 : 30·KBSN Sports), (KIA-삼성)(17 : 00·MBC ESPN)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히로시마)(17 : 50·SBS스포츠)
▲아시안컵 2007 3.4위전(대한민국-일본)(21 : 25·MBC·SBS스포츠·Xports)
29일(일)
▲PGA투어 캐나다오픈 3R(04 : 00·SBS스포츠)
▲메이저리그(미네소타-클리블랜드)(07 : 55·Xports)
▲FIBA 아시아 농구 챔피언십(대만-한국)(13 : 30·MBC ESPN)
▲전국 학교대학 배드민턴 선수권(13 : 50·SBS스포츠)
▲2007 한일 1,2학년 대학축구대회(대한민국-일본)(14 : 00·KBSN Sports)
▲프로야구(두산-롯데)(16 : 30·KBSN Sports), (KIA-삼성)(17 : 00·MBC ESPN)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히로시마)(17 : 50·SBS스포츠)
▲아시안컵 2007 결승전(이라크-사우디)(21 : 25·SBS스포츠·Xports)